

■ (농정 이슈) 2021.11.1. "kotra해외시장뉴스"

○ 중국, 비료 및 요소 수출제한 조치

- 자국시장에 우선 공급 목적, 규제 강화를 통해 수출 억제 -
- 수요 약화, 원료 가격 급등으로 중국 비료 생산 위축 예상 -

◇ 조치 사항

지난 10월 11일 중국 해관총서는 29종 비료 품목에 대한 수출 검역 관리방식을 변경한다고 공고했다. 별도의 검역, 검사 없이 수출이 가능했던 요소, 칼륨비료, 인산비료 등 총 29종 비료 품목(HS 10단위 기준)은 10월 15일부터 반드시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의 검역을 거쳐 통관단을 발급받아야 수출이 가능해졌다. 규제 강화를 통해 수출을 억제하고 중국시장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수출제한 조치로 풀이된다.

◇ 배경

중국 정부가 비료 수출을 억제하는 원인은 중국 내 비료 공급 부족 및 이에 따른 (중국) 국내가격 급등에 있다. 화학비료의 주요 생산원료인 천연가스, 유황, 석탄 등의 가격 급등세가 지속되는 데다가 최근 전력난, 각 지방정부의 에너지소비이중통제(能耗双控)까지 겹치며 화학 비료 및 요소 생산이 위축되고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. 10월 둘째 주 중국 요소 생산 가동률은 67.24%, 일평균 생산량은 14만9000톤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.6%p, 4.1% 감소했다.

겨울 밀 재배*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 정부는 화학비료 가격 상승세 억제, 중국 내 충분한 공급물량 보장을 위해 정책, 조치를 쏟아내고 있다. 화학비료의 중국 내 유통 비용 감면, 생산원료 공급 보장, 화학비료 생산에 전력 공급 보장 등의 조치가 포함된다.

주*: 화학비료의 식량 증산에 대한 기여도 약 40%

◇ 시사점

이번 규제 강화 조치로 중국의 화학비료 및 요소의 수출이 크게 억제됐다. 10월 28일 중국 주요 항구의 요소 재고량은 21만6000톤, 전주 대비 11만7000톤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

그러나 계절적 요인으로 수요가 위축되고 있으며 석탄 등 생산원료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어 중국 내 비료 및 요소 생산**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. 중국 내 공급이 개선되지 않으면 수출제한 조치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.

주*: 이번 주(10.25.~10.29.) 중국 내 요소 일평균 생산량 13만5500톤, 전주 대비 1만3200톤 감소

<자료: 광정선물연구원(方正中期研究院), 혼둔톈청연구원(混沌天成研究院)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>